

‘킹스맨’처럼 VR 회의... 5G가 만든 영화같은 일터

〈영화〉

SKT의 ‘5G 스마트 오피스’ 가보니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루는 ‘공유 오피스’가 대세인 시대. 임원실도 없고, 지정 좌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회사가 있다. 케이블, 칸막이도 찾아볼 수 없다. 직원 수는 300여명인데 사물인터넷(IoT) 센서 수는 2300개에 달한다. 지정석이 없어 원하는 자리에 자유롭게 앉아 여유가 넘친다. 비결이 뭘까.

13일 SK텔레콤이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 구축한 ‘5G 스마트오피스’를 찾아가 봤다.

센트로폴리스 빌딩 입구에 들어서면 로비 한켠에 사람 키높이 만한 ‘키오스크(정보시스템)’가 있다. 영상분석 기술과 인공지능(AI) 답러닝 기술을 이용한 ‘5G 워킹 스루(Walking-through) 시스템’이다. 사원증이 없어도 미리 등록만 하면 1~2초 안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 AI가 얼굴의 피부톤, 골격, 머리카락 등 약 3000여개의 특징을 잡아 출입 가능한 인물인지 파악한다.

로비를 지나 오피스 입구에서는 두 대의 카메라가 임직원을 파악해 별도 절차 없이 지나가기만 하면 문이 열린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자리를 지정하는 키오스크가 눈에 띈다. 5G 스마트오피스의 특징 중 하나다. 도서관 자리 지정석처럼 원하는 자리를 선택해 앉을 수 있다. 향후에는 AI 카메라를 활용한 감성분석도 가능해진다. 화가 나가거나 우울한 직원에게 햇볕 드는 좌석을 추천할 수도 있고, 바닐라 라떼와 같이 단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도록 제안하는 식이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겨 다니면 개인 PC 이용이 어렵지 않을까.

5G 스마트오피스는 이러한 답을 ‘5G

지문 대신 AI 안면인식으로 출입 스마트폰-PC ‘도킹시스템’으로 지정석없이 자유롭게 자리 선택 암호화 보관으로 해킹위험 차단 워라벨·소통·생산성 전반 향상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도킹 시스템’에서 찾았다. 개인 노트북이나 PC 없이도 도킹 패드에 스마트폰만 꽂으면 가상 데스크톱 환경과 즉시 연동돼 업무를 볼 수 있다. 실제 각 자리에는 모니터와 키보드, 도킹 패드만 배치돼 있었다. 직원이 도킹 패드에 스마트폰을 꽂자 PC 환경이 모니터에 바로 떠 업무를 볼 수 있다. 번거롭게 개인 노트북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SK텔레콤 직원은 “향후 5G가 상용화 되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를 데이터 수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어 수용 용량이 늘어나고 보안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도 똑똑해진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혼합현실(MR) 기술을 활용한 ‘T 리얼 텔레프리즌스’를 통해 원거리에 있는 회의 참가자들도 실제 같은 방에 모인 것처럼 느껴진다. 증강현실(AR) 글라스를 쓰면, 마치 실제 설계도가 앞에 있는 듯 3D 설계도면이나 대용량의 영상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 영화 ‘킹스맨’의 원탁회의 장면이 현실에 재현된 셈이다.

휴식을 취할 때는 ‘5G 카페테리아’에 가면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내려준다.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AI무인자판기를 이용해 동전 없이도 음료를 꺼낼 수 있다. 자판기가 직원을 알아보고 자동으로 정산해준다. 조만간 VR소셜 노래방을



SKT 모델들이 5G 워킹스루 시스템을 통해 출입증이나 지문인식 없이 사무실에 출입하고 있다. /SK텔레콤



5G VDI 도킹 시스템을 이용해 가상 데스크톱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김나인 기자

도입해 노래방에 가지 않아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도록 할 계획이다.

약 한 달여간 스마트오피스를 이용한 직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설문조사 결과, 워라벨(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만

족도는 80%, 소통·협업 증가는 59%, 집중도는 68% 향상됐다는 평가다.

5G와 AI를 도입한 오피스, 빌딩 등이 확대되면 대량의 센서와 디바이스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SK텔레콤

은 1km내 100만개 기기 동시 연결이 가능한 매시브 IoT 기술을 통해 자원관리, 시스템 관제, 보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킹 스루를 통한 생체 정보, 데이터가 수집되는데 해킹이나 정보 유출의 위험은 없을까. SK텔레콤 측은 “모든 정보는 암호화돼 보관된다”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받고 있으며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버려진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최낙훈 5GX IoT·데이터그룹장은 “5G스마트오피스가 확대되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정보, 의료, IT서비스, 교육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의 종사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협업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한불모터스 ‘제주 푸조 자동차 박물관’ 가보니



푸조 시트로엥 자동차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클래식카/한불모터스

제주도와 자동차를 사랑하는 이라면 한 번쯤은 가볼만한 곳이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있는 푸조 시트로엥 자동차 박물관이다. 제주속의 ‘작은 파리’로도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13일 푸조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은 국내 자동차 브랜드 중 최초의 자동차 박물관이자 프랑스 이외 지역 최초의 푸조 시트로엥 박물관으로 푸조 200년과 시트로엥 100년 역사를 엿볼 수 있다. 푸조 시트로엥 공식 수입원 한불모터스가 2년 동안 약 110억원을 투자해 약 8264㎡ 부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조성했다.

지난 12일 박물관에서 만난 푸조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식 개관 이후 현재까지 5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며 “방문객 비중은 제주도 현지인에 비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더 크지만 최근 입소문이 나서 도내 초, 중·고교에서 견학 오는 학생 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입구에 세워진 에펠탑은 ‘제주 속 작은 파리’라고 불리는 박물관의 명성을 더한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건축물인 에펠탑은 첨탑과 안테나를 포함해 320m의 격자형 철탑인데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제주 에펠탑’은 그 높이의 10분의 1 크기인 33m로 제작됐다.

박물관 1층은 시트로엥의 클래식카와 역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시트로엥 오리진스’와 다양한 오리지널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헤리티지 스토어’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차량 모형, 손목시계, 다이어리 등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역대 푸조 자동차의 사진이 걸려있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푸조의 역사가 담긴 기념비적 모델들을 만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모델은 1911년에 생산된 클래식카 ‘타입 139A 트로피도’였다. 옛 유럽의 귀족들이 타고 다녔을

자동차와 파리의 낭만, 제주서 만나다

국내 후 브랜드 중 첫 자동차박물관 푸조 200년·시트로엥 역사 한 눈에 초창기 차 모습 담은 클래식카 전시 에펠탑 구현으로 프랑스 감성 ‘물씬’ 도내 학생들부터 관광객까지 입소문

법한 고전적 느낌의 세련된 차량으로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만들어진 초기 자동차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모델은 1913년까지 2년간 551대가 생산됐다.

전시장 안 쪽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면 1900년대 초반부터 2000대까지 전 세계 24군데 현장에서 생산된 푸조의 베스트 모델들을 시대 순으로 볼 수 있다. 타입 139A 트로피도를 포함해 153BR 토르피도(1923년), 201C 세단(1930년), 401D 리무진(1935년), 601세단(1934년) 등 5대의 클래식 카와 2006년에 생산한 207CC 등 총 17대의 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푸조와 시트로엥의 모터스포츠 역사는 물론 브랜드가 진출한 다양한 산업분야, 주요연혁 등 브랜드의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히스토리 룸, 푸조의 상징인 사자모양의 역사, 브랜드의 다양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미디어 룸도 마련됐다.

한편, 푸조시트로엥 자동차 박물관의



푸조 시트로엥 자동차 박물관 외관, 입구에 33m 크기의 에펠탑이 세워져 있다. /한불모터스



1911년에 생산된 ‘타입 139A 트로피도’의 모습, 푸조 시트로엥 자동차 박물관 2층에 전시돼 있다.

입장료는 성인 6000원, 학생 4000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2000원이다. 푸조와

시트로엥 차량 보유 고객이나 푸조 시트로엥 제주도 렌터카 이용고객, 20인 이상 단체 관람객, 제주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할인이 제공된다.

그러나 교통편이 좋지 못하다는 점은 ‘옥의 티’로 남는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찾기가 힘들다.

푸조 관계자는 “교통편이 불편한 부분을 보완할 만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제주 내 푸조 렌터카 사업을 통해 박물관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1964@